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70)(9/30/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9 장 어떠한 위로도 없이 지냄, 3-4 절

롬 7:23-24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전 9:27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벧전 5:5 -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3.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자신의 온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오랫동안 치열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위로들을 구하는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열심으로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위로들에 빠지지도 않고, 그런 감각적인 달콤함을 구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혹독하게 연단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들게 수고하는 것을 원합니다.

4. 하나님이 영적인 위로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당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자고해지지 마십시오.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주계념게 생각하거나 행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그 선물로 인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매사에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위로의 시간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시험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떠나갔다고 해서, 금세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인내로써 하늘로부터 다시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다시 당신을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들과 옛적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말씀과 해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주님과 의 동행 가운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유지해야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함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다.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대로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난관을 경험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죄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 자신이다. 바울 역시 그 문제로 인해 큰 고민에 빠졌고 내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롬 7:23-24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최악된 본성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고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바울의 내적 갈등은 그의 평생에 계속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당면한 영적 과제 중의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다.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치루었다. 우리 역시 우리 바깥의 영적인 대적들과도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대적과도 싸운다.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내 안의 죄성이다. 나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고전 9:27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울러 바울은 결코 육신에게 저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롬 8:11-13 -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육신을 이기는 자가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위로는 참으로 크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은혜 받은 후에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연약한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으나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사울 왕의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볼 때 그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물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지는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 3:34 -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뱀전 5:5 -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고 그 형상을 드러내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은혜 가운데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스며드는 자만함과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3. 화산 폭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아프리카 라팔마섬 등 자연재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